

사랑의 샘

2007
여름
통권122호



사회복지법인 이천한나원

한나요양원 · 한나그린힐

홈페이지 : <http://hannawon.or.kr> 이메일 : echnw@hanmail.net

어르신들을 정성껏 모시고 있습니다

♥새롭고 즐겁고 편안한 노년생활을 하세요♥



- ※주위환경 : 기독교 박물관, 농원과 초원 ,산책로, 이천 설봉공원
- ※시설규모 : 연건평-567평, 5층 건물, 정원 50명
- ※대 상 자 : 중산층이하, 65세이상(기독교인 환영)
- ※입주비용 : 월 생활비 481,000원, 보증금 5,772,000원
(특별 간병료는 30%까지 추가) - 2007년 기준
- ※입주자격과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나 그 린 힐 (실비 노인요양시설)

467-852)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474-8

☎ 031-631-1911~2 Fax. 631-1922

홈페이지 : <http://hannawon.or.kr> 이메일 : igh2005@hanmail.net

2007년 사랑의 샘(여름호)

창간 1986. 2. 1



표지설명 : 5월 중순에 여주 금모래 은모래로 유원지로 야외예배를 다녀왔습니다. 가든파티와 레크레이션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통 권 : 122호
 발행인 : 한영재
 편집인 : 박양조
 발행일 : 2007. 6. 20

한나요양원	한나그린힐
주 소: 467-852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474-4	467-852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474-8
전 화: 031) 632-1357	031) 631-1911
팩 스: 031) 633-0850	031) 631-1922
이메일 : echnw@hanmail.net	igh2005@hanmail.net
홈페이지 : http://hannawon.or.kr	

사진위원 : 김성보
 편집기자 : 오은숙, 김영현, 박은영, 박영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
 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
 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
 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산성이 시로다.”

- 2 **원장 에세이**
어르신들을 위로하며
- 4 **요양원소식**
한나요양원 이런일 저런일
- 6 **그린힐소식**
한나그린힐 이모 저모
- 8 **봉사의 향기**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종이접기 프로그램
- 9 **어르신의 글**
식당 봉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 10 **좋은 이웃**
정성껏 방문해주신 분들
- 12 **얼린정보**
노년을 아름답고 보람있게 보내는 열가지 비법
- 13 **행사 이벤트**
즐거운 가든 파티
- 14 **도움의 손길**
사랑과 나눔, 정성과 보람
- 16 **직원 이야기**
어디서 누구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마무리 할 것인가?

어르신들을 위로하며

연재 예고 :

가을호-어르신들을 격려하며

겨울호-어르신들을 사랑하며



원장 박 양 조

무료 시설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참으로 어렵게 사시던 분들이 많다. 가족이나 친척이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연락이 안 되어 한 번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다.

어떤 분은 결혼하였으나 아이를 낳지 못하여 남편에게 소박맞고 집에서 나와 옛날에 성냥과 참빛을 행상하시다가 라이터와 샴푸가 등장하여 농촌에서 날품팔이를 하였는데 병에 걸려 며칠 누워 있다가 동네 사람들에 의해 부랑시설에 갔다가 우리 시설에 와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나를 아들처럼 생각해 주셨다.

어르신들은 연세가 드시면서 안타깝게도 노환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다. 우리 시설이 22년 전에 개원한 때에는 양로시설이었다. 모두 거동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로 활동하셨고 특히 농사도 지어서 콩이나 들깨를 심어 가을에는 베어다가 타작도 하셨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몸이 쇠약해지시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입주하셔서 노인요양시설을 병설하게 되었고 지금은 모두 요양시설이 되고 말았다. 또한 증축하면서 경사로를 만들었으나 실제적으로 사용이 불편하고 위험하여 작년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잘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78.6세이지만 건강 수명은 68.6세로 10년 동안은 질병이나 각종 부상 등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한다. 질병 중에는 암,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당뇨, 고혈압 순으로 건강수명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늘어난 수명이 질병과 장애로 연결된다면 개인으로서 삶의 질의 저하를 가져오고, 가정과 사회에는 정신과 물질적인 부담이 들어난다고 생각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여성(81.8세)이 남성(75.1세)보다 평균 6.7세를 더 살지만, 건강수명 차이는 2.2세에 불과하여, 여성들이 관절염과 우울증 등 남성보다 질병이 많아 건강이 나쁜 상태로 더 오래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즈음 우리나라는 어르신들의 우울증이 크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우울감은 누구나 느끼며 이 감정은 대개 2, 3일 정도 지나면 사라진다. 그러나 심각한 우울감이 수 주 이상 지속되거나 무

가치한 느낌과 절망감이 꼬리를 물고 계속된다면 우울증이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우울증은 좌절감, 흥미와 의욕상실, 대인기피, 공격적분노 등을 동반하며 소화불량, 자율신경계 이상, 신체통증, 체중감소, 폭식으로 인한 체중증가, 불안, 초조 증상 또한 몸이 늘어지거나 수면 장애 등 신체증상을 보인다. 우울증 환자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의 40배라고 한다. 한국인의 자살률은 10만 명 당 24.2명으로 OECD국가 중 1위(2005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생활의학으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 ① 조언만 하는 사람보다 무조건 말을 들어주는 친구를 구한다. 그런 친구와 대화하면 안정감과 신뢰감을 얻을 수 있다.
- ② 아침운동을 시작한다. 하루에 만보를 목표로 천보부터 시작한다. 친구 한명과 함께하면 더욱 좋다. 운동을 하면 집중력과 기운이 생긴다.
- ③ 아침식사를 든든히 한다. 음식을 꼭 꼭 씹어 먹는다. 식욕이 없으면 두유나 야채 또는 과일즙을 마신다.
- ④ 햇빛을 45분 동안 쬐인다. 햇빛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비타민 D를 형성해 아침에 섭취한 칼슘을 흡수하여 피를 알칼리화 하며 뼈를 튼튼하게 한다.
- ⑤ 15초 동안 크게 웃는다. 웃을 때 엔돌핀이 분비되어 스트레스로 아팠던 근육, 신경통이 완화되며, 15초 동안 웃으면 9분 동안 걷는 것과 비슷하며 암세포를 죽인다.
- ⑥ 새로운 것을 배운다. 물도 하루에 최소 8잔을 마신다. 특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것을 배우며 하나님의 성품을 매일 새롭게 깨닫기를 힘쓴다.
- ⑦ 기도와 묵상으로 일과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한다. 기도와 묵상은 초초함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신뢰를 체험하게 한다.

우리 시설에서는 매일 새벽기도회를 갖고 저녁에도 설교 테이프를 듣고 기도하며, 매주 주일에 배와 찬양예배를 드리며, 매주 수요기도회를 개최한다.



'97년 5월 제주도 관광여행 중 기념촬영



2000년 6월 덕평 한국필름 연수원에서 즐거운 한 때

한나요양원 이런일 ~ 저런일 ~



봄을 알리는 산수유 축제

노오란 산수유 꽃에 살며시 스며든 봄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혀요.



뫼나물을 다듬으며~~·

뫼나물의 싱그러움에 봄내음이 물씬 풍기네요~~
뫼나물 김치도 해먹고 고추장에 묻혀 먹으면 입
안 가득 봄의 상큼함에, 아~행복해~! 어르신들
손길이 더욱 바빠집니다.



벚꽃 앞에서 포즈를

한나원 입구에 한 폭의 풍경화같이 펼쳐진 벚꽃
나무 아래 어르신들과 정답게 포즈를 취해 보았
어요.

직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어르신들 돌보시느라 항상 수고하시는 직원분들
의 건강도 챙기셔야죠~~ 충청도 대둔산에서 다
시한 번 직원분들의 단합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직원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합시
다~~~!!





세계도자 비엔날레

제4회 세계도자 비엔날레가 이천 설봉공원에서 열렸어요. 어르신들과 도자기의 신비로움과 매력에 푹 빠져 봤어요.
세계의 진귀한 도자기를 다 봤지만 역시 이천 도자기가 최고야 !!

바자회 구경갔어요.

영락 경로원에서 주최한 바자회 나들이를 갔어요. 날씨도 쾌청하고 필요한 이것저것을 구경하고 싼값에 구입하니 마음까지 넉넉합니다.



모두가 즐거운 가든 파티!!

신록의 푸르름 한가운데서 맛있는 고기도 실컷 먹고 마음껏 유쾌한 시간을 보내니 노란조끼 우리 어르신들 10년은 더 젊어지신 것 같네요.



직원 현황 (5월말 현재)	원장	총무	생활복지사	족탁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조리원	위생원	계
	1	1	1	1	3	1	1	16	2	1	28

입주자 현황 (5월말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	계	입주자	퇴소자
	15명	65명	80명	4명	4명

한나그린힐의 이모 ~ 저모 ~



어버이 은혜 감사드려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설봉공원에서 열린 기념 잔치에 참여했어요, 갖가지 공연들과 놀라운 매직쇼를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좋은 선물까지 받고... 감사드려요*^^*

대월면에서 열린 경로잔치 ~

우리가 살고 있는 대월면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큰 경로잔치를 열었어요, 새마을 지도자들이 차려준 푸짐한 잔칫상과 대월면 자치회에서 준비한 공연으로 시간가는 줄 몰랐다니까요~^^



방염 커튼을 설치했어요.

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어르신들 방마다 방염커튼을 설치해 드렸어요, 자나 깨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우리 모두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이맘때면 ...

가정의 달 5월이 되면 우리 가든파티를 열어요,
울해도 여주 금모래 은모래에 가서 야외예배를 드리고,
풍성한 식사와 레크레이션으로 아주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요~



미리 미리 훈련해 줘야죠!

급할 때 당황하면 큰 일이에요, 사전에 연습해 두고 익혀두면 언제라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어르신 대피와 소화기 사용법을 모의훈련하면서 모두들 긴장을 늦추지 않았답니다.

입주자 현황 (5월말 현재)	할아버지 12명	할머니 23명	계 35명	입주자 9명	퇴소자 4명
--------------------	-------------	------------	----------	-----------	-----------

직원 현황 (5월말 현재)	생활복지사 1	간호사 1	물리치료사 1	생활지도원 6	조리원 1	위생원 1	계 11
-------------------	------------	----------	------------	------------	----------	----------	---------

※ 원장, 사무국장은
겸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종이접기 프로그램



강사 강인숙

오래전부터 복지관을 통해 어르신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또한 친정어머니로 인해 요양원에 관심이 많았기에 한나원과 인연을 맺게 되어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한다.



수업시간이 되면 “구경하러 왔어요” “난 할 줄 몰라” “머리 숫자나 채우기 위해 왔어요” 말씀 하시면서도 종이를 접으신다. 한 단계 한 단계 접는 방법을 알려주면 묵묵히 접으시는 어르신, 옆의 어르신을 도와주며 접으시는 어르신,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고 손을 움직여 무슨 모양이 나올지 궁금해 하며 열심히 접으신다. 완성되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볼 때 뿌듯하고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또 어르신들도 이 시간에 작은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일부분이 되지 않을까?

가끔은 피를 피우고 싶다가도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더 부지런하고 쉽게 접할 수 있고 간단하고 예쁘고 재미있는 것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나원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식당봉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한나요양원 박영순 권사

내가 한나원에 입주 한 것은 나이 72세였던 1995년 2월 8일 이었습니다.

나는 젊어서 자궁 대수술을 받았고 신경통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주위에서는 일찍 죽을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입주하기 4년 전 강원도의 한 모자공장에서 생활하면서부터 규칙적인 식사 등으로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으나 모자공장을 떠나게 되어 다니던 홍천 화계교회 목사님이 이천에 아주 좋은 양로원이 있는데 가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거라며 한나원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2월이면 날씨가 꽤 추웠는데 목사님을 따라 견학을 간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원장님을 보니 안심이 되었고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나원에 입주할 당시 할아버지, 할머니가 50여분 계셨는데 “나는 아직 몸이 건강하니 무엇인가 봉사를 하고 싶다”고 총무님께 말씀드렸더니 식당에 근무하는 직원이 부족하니 봉사를 하라고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몸이 아프거나 힘들면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 입주자들을 볼 때나 방문하신 손님들이 “한나원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할 때 힘든 줄도 모르고 즐겁게 봉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영양사 선생님을 비롯하여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직원분들이 잘 대해주고 서로 잘 협력하여서 즐겁고 기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 나이 84세가 되어 앞으로 얼마나 봉사를 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봉사할 수 있게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정성껏 방문해 주신 모든

● 한나요양원



3/7 하이닉스

자주 오시는 분들이시지만 볼 때마다 반갑습니다. 어디 한군데 소홀한 부분이 없는지 챙겨 주시는 그 마음 감사합니다.



대상 전문당 연구소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같이 하는 우리는 하나.



3/24 유니크 펠 닥터스

닥터스는 사랑을 싣고~
정성어린 진료는 기본, 어르신 간호, 영양, 복약 교육은 보너스...



4/27 중국 신평 경로원

생김새와 사는 모습은 달라도 어르신들을 향한 측은 어디나 같지요...



5/22 서울 목양회

달려온 길은 서로 다르지만
자기 선 그곳에서 빛을 내는 분들입니다



5/10 광석교회 하늘소리 선교단

말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은 비단 초코파이 뽕만이 아니랍니다.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 3월 ~ 2007년 5월

● 한나그린힐



이·미용 봉사 팀

한 달에 한 번씩 김성옥 권사님을 비롯해 몇 분씩 방문하셔서 이·미용 봉사를 해주십니다. 매번 다녀가시고 나면 어르신들의 모습이 환해져요~~ㅎㅎ

경기도노인복지시설 사무국장 연합회

경기도내 각 시설에서 제일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들이 모여서 제 23차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부천 참된교회(안수 집사회)

공휴일을 맞아 봉사활동을 위해 안수집사들이 뭉쳤습니다. 40여분 오셔서 방문예배와 레크레이션 그리고 원내 환경정리까지... 혹시 몸살 난 분이 계실까 걱정되네요...

노인일자리 사업단

일주일에 세 번씩 오셔서 함께 프로그램도 참여해주시고 원내 조경도 관리해주셔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노년에도 즐겁게 일하시는 모습이 늘 보기 좋아요,



노년을 아름답고 보람있게 보내는 열 가지 비결

1. 단정히 하자

나이가 들수록 추하게 살지 말고 집과 몸과 사용하는 물건과 주위환경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자.

2. 긍정적으로 살자

부정적인 태도로 생활하지 말고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여 주변 환경을 활기차게 만들자.

3. 꾸미자

외출할 때나 집에 있을 때를 막론하고 언제나 머리와 몸과 옷과 신발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고 생활하자.

4. 양보하자

가능하면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양보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도와주면서 이웃이나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살자.

5. 보답하자

가능한 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기 형편에 따라 지갑은 자주 열어 도와주는 반면에 입은 자물쇠로 채우고 살자.

6. 독서하자

독서를 중단하지 말고 부지런히 책을 소리 내어 읽어 치매를 방지할 뿐 아니라 날마다 지식과 지혜를 쌓자.

7. 침묵하자

지난 과거 누린 직책, 직위는 다 털어버리고 듣기를 좋아하고, 묻는 말은 간단명료하게 하고 묻지 않을 때는 노파심을 가지고 훈수하지 말자.

8. 모임에 참석하자

어떤 회의나 어떤 모임이든지 부지런히 참석하고 대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젊은 사람 못지않게 봉사를 즐겨 하자.

9. 산책하자

나이가 들면 몸이 둔화되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장기들이 약해지므로 매일 걷는 것을 잊지 말자.

10. 의지하자

자존심과 고집은 뒤로 보내고 언제나 어린 아기가 어머니를 의지하듯 마음을 하늘로 향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신록의 푸르름 한가운데 펼쳐진 즐거운 가든파티

생활복지사 박은영

5월의 하순....

봄이 끝나가고 우리들 곁에는 어느덧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 한나원에서는 매년 이맘때면 어르신들을 모시고 직원들과 함께 야외로 나가 자연을 느끼며 즐거운 가든파티를 열고 있다.

올해에도 요양원과 그린힐 어르신들을 모시고 여주에 있는 은모래 금모래에 가서 감사예배도 드리고 가든파티를 근사하게 하였다. 거의 60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버스에 나누어 타고 여주를 향해 출발하였다. 살랑 살랑 코끝을 간지럽히는 봄바람이 더욱 우리들 마음을 설레이게 해주었다.



도착하니 넓고 큰 잔디밭과 울창하게 우거진 나무들이 우리를 시원하게 맞아주었고 탁 트인 강가의 시원함도 우리를 기분 좋게 해 주었다. 울창한 나무 그늘 밑에 자리를 깔고 어르신들과 빙 둘러앉아 먼저 이런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원장님의 인도에 따라 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 준비해온 즐거운 식사시간!!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편하도록 삼삼오오 대형을 만들어 영양탕도 드시고 숯불에 맛있는 고기도 구워먹고... 풍성한 먹거리에 모두가 만족한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식사시간이 끝난 후 약간의 휴식을 취한 후 2부 순서로 즐거운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졌다. 모두 다 마음을 활짝 열고 신나게 웃고 게임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마음껏 웃고 떠드니 스트레스도 확 날아가고 신록의 푸르름 속에 폭 빠지니 우리 마음도 푸르러 십년은 더 젊어진 듯하다. 자리를 정리하고 시원한 강가를 돌아보며 웃음이 가득한 어르신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너무나 좋다. 저 밝은 웃음 잃지 않고 오랫동안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사랑과 나눔

(2007년 3월 ~ 2007년 5월)

♥ 따뜻하고 아름다운

【후원금】

- 개인 -

박양조(3회), 정하국(3회), 차관영(3회), 정해영(1회), 이선재(3회), 신학철(2회), 김정숙(3회), 김갑순(3회), 임회환(3회), 신연옥(3회), 손희라(3회), 이한섭(3회), 이은옥(3회), 김영현(3회), 전주인(3회), 이옥화(3회), 오은숙(3회), 김영자(3회), 안태자(3회), 조미자(3회), 한동숙(3회), 김계옥, 윤혜정(3회), 이선재(3회), 김은하(3회), 최애심(3회), 김덕수(3회), 박영옥(3회), 김영란(3회), 윤계섭, 문산월 장종린, 김수돌가족, 최상열, 김수돌, 김정자, 박동기, 심덕보, 박복순, 박점례, 홍석기, 최혜영, 백화점약국, 한동숙(3회), 김홍순(3회), 차인경, 한정현(4회), 신수영(2회), 윤여춘, 이경자(3회), 이정분(3회), 박은영(3회), 김정자, 박미진(3회), 여주세민병원(2회), 영락교회, 이상윤, 참된교회, 신수영, 황선양, 박양조

- 단체 -

동막교회(3회), 평강교회(4회), 이천한나원교회, 평북노회 사회부, 신흥교회 권사회, 광석교회,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서울고 기독교인회, 신흥교회, 사)한노협(3회), (주)브이텍(3회), 과천교회(3회), (주)한국필름(3회), 대한예수교장로회(3회), 청주동산교회, 이마트이천점, 경노협?(주)씨뿌리는사람들, 평광교회(3회)

【지로후원】

한국내과(3회), 이규원(3회), 김유향(2회), 이학우(3회), 길석환, 김병혁, 박병숙(3회), 양인평?퀵서비스, 윤홍진, 이천정육점, 무명

【후원물품】

박명환, 한정현, 대상(주)(3회), 임금님쌀밥집, 양돈협회, 하이닉스(3회), 유니크필닥터스, 엄순이, 일진산업, 이천신하교회, 정은숙, 이옥화(2회), 영천상회(2회), 이천신협수지회, 대월면사무소, 김진남, 이천화로숯불구이, 이소현, 농산물유통공사, 정신화, 한나그린힐, 코스코 이천물류센터, 윤계섭, 짐씽유치원,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광석교회, 흥천중앙요양원, 삼성전기, 평화건설(주), 방세광, 김봉재, 이천정육점, 천지가스, 안정란, 한국도로공사 이천지부, 서

정성과 보람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

울고 목양회, 뚜레쥬르 하이닉스점(매일), 영신상회(2), 이진한, 이득귀, 전금희, 우영희, 이기영, 윤여춘(2), 이찬호, 영락교회 제1남3교구, 우문자, 이서구, 장영옥, 이천시청, 허완길, 임춘, 정치의, 박부덕, 정용진, 서병열, 서영임, 이연희, 중앙노인요양원, 이명훈, 장영자, 양순자, 참된교회, 이병호, 무명(3회)

【자원봉사】

하이닉스반도체(7회), 대월중(26회), 이천고(6회), 이천중(2회), 호스피스팀(목욕봉사, 3회), 한국도로공사, 설봉중(2회), 양정여고, 양정여중, 효양고(3회), 효양중(8회), 창명여고, 마장중, 중앙교회(목욕봉사 2회), 관동동부녀회(목욕봉사 3회), 이천플러스회, 이천실험수지회(2회), 대월사랑회(목욕봉사 4회), 한려대(2회), 영광교회 글로리아 찬양단(2회), 조승우헤어(이용봉사 2회), 신금순, 남분자, 조명순(5회) 김준규(4회), 삼성전기, 이천침례교회, (주)대상(5회), 유니크 펄 닥터스, 이미자, 협성대학교, 한국도로공사, 상운회 교통봉사대, 2850부대, 장제금 외2명(6회), 정예진 외 2명(4), 박유미 외 3명, 김향자 외 3명, 박혜민 외 31명, 신흥교회 김금순 외 5명(2), 김영희 외 3명, 이미용봉사 김성옥권사 외 1명(2), 홍초자 외 8명, 김향자 외 3명, 이천고 학생 15명, 삼성전기 사원 30명, 효양중 이현근 교사 외 30명, 대월중학교 이유리 학생 외2명, 충일교회 한은순권사 외6명, 협성대학교 권덕상 외3명, 영락경로원 권기용 원장 외 24명, 효양중 전일교사 외 학생31명

짧은 NEWS

- * 수고하셨습니다! - 생활지도원 김영자 선생님이 4월 30일 퇴사 하셨습니다.
- * 환영합니다! - 조리원 서금숙 선생님이 5월 1일 입사하셨습니다.
- * 직원교육 - 3/14~3/15 박은영, 박영옥- 사무국장 및 중간관리자 직무교육
3/30 한동원- 자원봉사 인증교육
4/18 한동숙 사무국장- 관리자 연수회
4/20 김덕수- 물리치료 직무교육
4/25 한동원- 승강기 관리자 교육

어디서 누구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마무리 할 것인가?



한나그린힐 생활지도원 김은수

살림!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서인지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유난히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나그린힐 이라는 좋은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의 희망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을 누리는 것인데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년기의 삶 또한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하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인정하는 마음이 요구된다고 여겨집니다. 즉, 정년이 되면 은퇴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본인이나 가족들도 노인이 되면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인정함 속에서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꾸준한 운동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짐으로써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년기의 행복은 단순히 오래 사는데 있지 않고 얼마나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는가? 하는 삶의 질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수하는 게 본인은 물론 자녀에게 고통이 된다면 단순히 수명연장에만 매달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마무리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누구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마무리 할 것인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인데 한나그린힐 가족으로 정하고 함께 생활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참 복 받은 분들이시라고 여겨집니다. 20년 전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설립된 한나그린힐은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곳, 때마다 드러지는 예배가 있어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는 지상 낙원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이 한 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자녀들을 위해 복을 빌며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기도 하면서 사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 하길 바랍니다.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관람안내

Visitor's Guide



■ 사료이용안내
후원회원에게는 사료의 열람과 복사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복음과 역사의 향기

복음 선교 120년 신앙위인 120인
평양장대현교회 복원 9월 개관

■ 휴관일

- 주일은 쉽니다.
- 평일, 공휴일 개관

■ 개관시간

- 하절기 : 오전 10시~오후 5시
- 동절기 : 오전 10시~오후 4시
- 점심시간 : 12:00~13:00

■ 연락처

- ☎ 031) 632-1391, 011-9985-9084
(안내 : 김성보 집사)
- FAX : 031) 632-1391
- E-Mail: museum2001@hanmail.net
- Homepage: kchmuseum.org

■ 단체관람

20명 이상 단체관람은 전시관이 협소하여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준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후원을 안내합니다 ♥

후원물품 : 생활용품 및 음식물

후원금 : 농협 233071-55-000078(이천한나원)

국민은행 230-24-0087-828(한영제)

지로번호 7612035

방문감사예배 : (설교), 기도, 특송, 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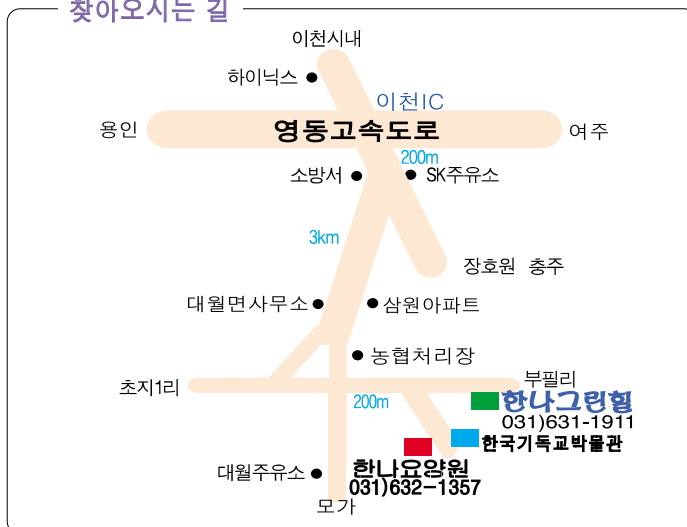
기술봉사 : 목욕, 치료, 원예, 이·미용 등

노력봉사 : 기관단체, 학생, 가족, 개인



집집마다 담장에는 붉은 넝쿨장미가 한창인 장미의 계절입니다. 6월의 장미만큼 아름다운 날들을 기원합니다.

찾아오시는 길



대중교통 이용 : 이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초지리행 버스 탑승.
매 시각 정시, 30분에 운행(소요시간 약 30분)